

고조를 찾아서

이지은, 이필원, 이지아, 은정 글 | 유경화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 5학년 국어 책을 읽고 생각 넓히기

분야: 한국 창작동화, 판타지 동화, 단편동화

활용: 토론, 글쓰기, 도덕적 성찰

주제어: #판타지 #과학기술 #미래 #역사 #도덕적 성찰

선정 내역: 제6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참고 자료: 『제1-2회 교사 인문학 독서토론』, 이효재,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2014-2015

작 성: 창원 도계초등학교 신동영 선생님



■ 책의 내용

『고조를 찾아서』는 제6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으로 수상작 「고조를 찾아서」 외 네 편의 SF 단편동화가 실려 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시간 여행을 통해 친일파 고조할아버지를 설득하려 떠나거나, 디포머를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의 외모가 되거나,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도덕 시험을 치른다. 상상만 하던 과학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현될 때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진짜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작품들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 창원 도계초등학교 신동영 선생님의 책 소개

코로나19는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비대면 라이브방송이 일상화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노력하여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기 환경은 좋아졌지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여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고조를 찾아서』를 읽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구현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여행, 외계 생물체 등장, 우주에서의 일상, 가상현실이 가능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양면성과 윤리적 문제 앞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체적인 삶을 꿈꾸어 보길 바란다.

■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

-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읽기 전	<미리 보기 전략*을 활용한 내용 예상하기> - 출판사, 글쓴이, 그림이 살펴보기 - 한낙원과학소설상 알아보기 <단편소설 알아보기> - 작가가 여러 명인 책 읽은 경험 나누기 - 작가 소개, 차례를 읽고 가장 읽고 싶은 작품 선택하기	1차시
읽는 중	<목독하기>	2, 3차시
읽은 후	<단편 고르기> -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과 그 이유 말하기 - 우리 반이 함께 읽을 단편 고르기	4차시

* 출처: J. W. Irwin 글, 천경록·이경화 옮김, 『독서 지도론』, 박이정출판사, 2003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읽은 후	<p>〈고른 단편 함께 읽기〉 -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p>	5차시
	<p>〈지금 vs. 미래〉 - 지금과 미래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더블버블맵 활용) -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끼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야기 나누기</p>	6차시
	<p>〈만약에 나라면〉 -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기</p>	7차시
	<p>〈비경쟁 독서토론〉 - 1단계 제대로 읽기(정직한 독자 과정) - 2단계 질문하며 읽기(질문하는 독자 과정) - 3단계 토론하며 읽기(토론하는 독자 과정)</p>	8, 9차시
	<p>〈선택 활동〉 ▶ 고조를 찾아서 〈나의 조상이나 후손의 모습 그리기〉 - 나의 조상이나 후손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기 ▶ 아아마 〈책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 기여린에게 편지 쓰기 〈가치 수직선 토론〉 - ‘디포머블 마스크 상품화’을 주제로 토론하기 ▶ 구름 사이로 비치는 〈뒷이야기 상상하기〉 - 뒷이야기 상상하여 미니북 만들기 ▶ 우주의 우편배달부 지모도 〈그림으로 나타내기〉 -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물건이나 가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 시험은 어려워 〈내가 만드는 시험〉 - 내가 만들고 싶은 시험 방법이나 형식 쓰기 ▶ 공통 〈표지 꾸미기〉 - 단편 중 한 편을 선택하여 표지 꾸미고 전시하기 〈서평 쓰기〉 - 단편 중 한 편을 선택하여 서평 쓰고 별점 매기기</p>	10차시

■ 독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① 단편동화집 『고조를 찾아서』는 제6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입니다. ‘기획의 말’을 함께 읽으며 한낙원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과학소설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표지, 책등, 책날개 등을 꼼꼼하게 살펴며 자연스럽게 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합니다. 표지를 살펴보며 작가가 네 명이라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작가가 여러 명인 책을 읽은 경험을 나누고 작가 소개, 차례를 읽고 가장 읽고 싶은 작품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줍니다.

② 단편동화는 짧은 글 속에 개성 있는 등장인물이나 뚜렷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어 수업 시간에 읽어 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장편이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단편은 낯설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상황, 아이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록된 단편 중 몇 편, 또는 한 편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읽기 전 활동으로 간단한 토의나 투표를 하여 읽고 싶은 단편을 아이들이 선정합니다. 이 방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거나 시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단편을 모두 수업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며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록된 단편 전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 독서지도안 『엄순대의 막중한 임무』 참고) 이 방법은 한 권을 읽고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악해야 할 인물, 사건, 배경, 줄거리가 많기에 교사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조를 찾아서』는 단편소설집이면서 과학소설입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형식과 장르이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기에 첫 번째 방법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출처: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지음, 『이야기 넘치는 교실 온작품 읽기』, 북멘토, 2016

읽기 전

1. 표지, 책등, 책날개를 보고 출판사, 글쓴이, 그리이를 찾아봅시다. 2~3쪽 '기획의 말'을 읽고 한낙원과 학소설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살펴보고 읽은 것을 토대로 알게 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 이지은, 이필원, 이지아, 은정이 글을 썼다.
- 유경화가 그림을 그렸다.
- 한낙원 선생님은 SF 분야에서 우리나라 선구자였다.
- 한낙원과학소설상은 한낙원 선생님 유족의 후원으로 시작한 공모전이다.

선생님께 과학소설을 접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기획의 말'을 읽으며 과학소설이 무엇인지, 이 작품집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하여 책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찾은 것, 알게 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교사가 미리 과학소설과 한낙원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작가가 여러 명인 책을 읽은 경험을 말해 봅시다. 작가가 여러 명인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3. 작가 소개, 차례를 읽고 가장 읽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붙임 종이를 활용하여 가장 읽고 싶은 작품과 그 이유를 적어 칠판에 게시하여 아이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생각과 비교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작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읽는 중

수업 시간에 묵독합니다.

선생님께 책을 과제로 읽어 오게 하거나 자투리 시간에 읽게 하면 다 읽지 못하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업 시간에 읽을 시간을 주면 모든 아이가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기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2차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은 후

1.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과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2. 우리 반이 함께 읽고 토론할 단편을 선정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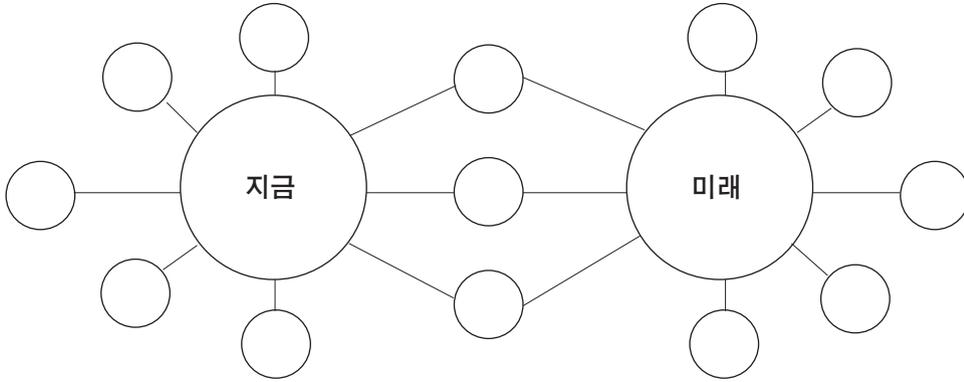
선생님께 고학년의 경우 토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만 보통 독서토론이라고 하면 찬반 토론이 익숙하므로 비경쟁 독서 토론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토의나 투표로 토론할 단편을 선정합니다. 학생 주도로 토론할 단편을 선정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토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습니다.

선생님께 '읽기 방법 정하기'에서는 학생 묵독, 교사가 책 읽어 주기,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읽기, 학생과 학생끼리 번갈아 읽기와 같은 책 읽기(책 읽어 주기) 방법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상을 정합니다.* 이번에는 소리 내어 읽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묵독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다른 점과 좋은 점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방법으로 읽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교육부, 『5~6학년군 초등학교 국어 5-2 교사용 지도서』, 2019

4. 이야기 속에서 지금과 미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더블버블맵'으로 나타내 봅시다.



선생님께 '더블버블맵'은 어떤 주제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때 쓰기에 좋은 맵입니다. 더블버블맵 형식을 칠판에 제시하고 한 명씩 나와서 쓰도록 합니다.(전체, 모둠, 개인 활동 모두 가능함) 친구와 다른 내용을 쓰기 위해 친구가 쓴 내용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5.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끼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둠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 고조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전달할까?(「고조를 찾아서」)
- 디포머블 마스크를 구입할까?(「아아마」)
- 꾸꾸를 숨겨 줄 것인가?(「구름 사이로 비치는」)
- 지모도의 우편 가방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우주의 우편배달부 지모도」)
-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영혼을 갖다 바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시험은 어려워」)

선생님께 읽은 후 4, 5, 6번 활동은 선정한 단편동화에 한정하도록 합니다. 이야기에 깊이 있게 몰입하고 주제와 소재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이며 비경쟁 독서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6번 활동의 문제 상황은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 제시할 수 있고 개인이나 모둠별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7. 비경쟁 독서토론 하기

비경쟁 독서토론 1단계: 제대로 읽기(정직한 독자 과정)

〈책을 제대로 읽어요〉

책 읽은 날짜	월 일 모듬명: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 있게 읽은 구절 (쪽수 표시)	예시) - 사내가 품속에서 자그마한 태극기를 꺼내 흔들니다. (17쪽) -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66쪽)
글쓰이는 이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썼을까	예시) -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 기여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면서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감상 나눔	

선생님께 먼저 1단계는 '정직한 독자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책을 제대로 읽는 단계입니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의미 있게 읽은 부분에 줄을 긋거나 표시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 있게 읽은 구절을 각자 종이에 쓰고 그 까닭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모듬에서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뽑고 다른 모듬에 소개합니다.

모듬에서 정리한 것을 벽면이나 이젤에 부착하고 전시회 구조로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정적으로 앉아만 있으면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듬의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인상 깊은 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 칭찬할 점 등을 기록합니다.*

*출처: 이효재 외 7인, 『당당한 독자들의 즐거운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2018

비경쟁 독서토론 2단계: 질문하며 읽기(질문하는 독자과정)

〈책과 저자에게 질문하며 읽어요〉

<p>내가 만든 질문</p>	<p>★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예시) 「구름 사이로 비치는」 - 윤재네 가족이 꾸꾸를 숨겨 준 까닭은 무엇일까? 「우주의 우편배달부 지모도」 - 해커들의 반란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험은 어려워」 -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영혼을 갖다 바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p>
<p>질문을 만든 이유</p>	
<p>우리 모둠에서 고른 좋은 질문과 그 질문을 고른 까닭</p>	
<p>질문 나눔</p>	

선생님께 2단계는 '질문하는 독자 과정'입니다. 먼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작가, 책의 내용,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질문을 만든 이유를 씁니다. 보통 질문을 쓰면 답을 쓰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든 이유를 씁니다. 역시 모둠에서 대표 질문을 정하고 다른 모둠에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방법은 전체에게 발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질문을 만든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른 질문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바꿔 가며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교육연극 '핫시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 등장인물에 관한 질문을 고른 뒤 그 인물이 되어 볼 사람을 선정합니다. 전체 학생들 앞에 자리를 준비하여 앉도록 합니다. 앞에 나온 학생은 질문 속 인물이 되어 답하고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생각을 나눕니다.*

*출처: 이효재 외 7인, 『당당한 독자들의 즐거운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2018

비경쟁 독서토론 3단계: 토론하며 읽기(토론하는 독자과정)

〈우리의 생활문제를 연결하여 토론해요〉

책 읽은 날짜	월 일 모듬명:
책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고민 내용	
내가 정한 토론주제	
모듬 토론주제	
토론 과정	
토론 소감	

선생님께 3단계는 ‘토론하는 독자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독서와 삶이 연계될 수 있으며 책 읽기를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주제는 책에서 벗어나 내 주변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토론주제를 생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문제의 발견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논의’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것을 찾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 교사는 아이들이 토론 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되 토론주제 생성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출처 : 이효재 외 7인, 『당당한 독자들의 즐거운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2018

8. 독후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한 가지 활동이 끝난 뒤 시간이 남으면 다른 활동을 만들거나 친구(다른 모둠)가 만든 활동을 해 봅시다.(개인, 모둠 가능)

〈예시〉

「고조를 찾아서」

-나의 조상이나 후손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기

「아아따」

- 책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 가치 수직선 토론: '디포머블 마스크 상품화'을 주제로 토론하기

「구름 사이로 비치느」

- 뒷이야기 상상하여 미니북 만들기

「우주의 우편배달부 지모도」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물건이나 가치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험은 어려워」

-내가 만들고 싶은 시험 방법이나 형식 쓰기

▶ 공통

- 단편 중 한 편을 선택하여 표지 꾸미고 전시하기

- 서평 쓰기, 별점 매기기

선생님께 비경쟁 독서토론을 하면서 작품에 깊이 몰두한 아이들에게 선택 활동으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활동에 흥미와 재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 아이일수록 더욱 몰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